

김광현 떠나고 양현종 '원톱' ... 10개 구단 토종 1선발

차우찬·이영하·최원태 등 주목...이재학 부활·배제성 관심

엷히고 엷힌 한화-롯데, 장시환·노경은 각각 3선발 맡을 듯



두산 이영하



롯데 노경은

김광현(세인트루이스)이 메이저 리그로 떠나면서 양현종(KIA)이 원톱으로 떠올랐다. KBO리그 토종 1선발 얘기다. KBO리그 10개 구단은 2명씩 외국인 투수를 보유하고 있다. 얼마나 훌륭한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는가, 그리고 그 뒤를 받칠 토종 선발이 있는가에 따라 한 해 승자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토종 에이스를 보유한 팀은 외국인 투수 2명이 제 몫을 해

준다는 가정 아래 탄탄한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도 따라온다. 지난해 SK가 대표적이다. 김광현, 양현종 산체스(일본 요미우리), 헨리 소사(대만 푸방)로 이어진 막강 선발진을 앞세운 SK는 정규시즌 막바지까지 선두를 독주했다.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우승을 두산에 내준 것이 아쉬웠을 뿐이다. 올 시즌 토종 1선발만 놓고 보면 KIA가 가장 좋다. 국가대표 예

스 양현종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양현종은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투수. 특히 올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 동기부여도 잘 돼 있는 상태. '다텐딩 챔피언' 두산도 이영하라는 걸출한 선발 자원을 키워내 걱정이 없다. 이영하는 지난해 17승을 거둔 뒤 국가대표팀에도 승선, 프리미어12 한일전에서 호투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4급 장기 대기' 군면제 관정으로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더욱 기대를 모은다. 김광현을 떠나보낸 SK는 '잠수함' 박종훈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박종훈은 지난해 승승이 따르지 않아 8승에 그쳤지만 최근 3년 간 34승을 거둔 SK의 대표 선발 지원이다. 절친한 선배 김광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해지면 올 시즌을 준비하는 박종훈의 각오가 남다르다. 키움은 최원태가 든든하다. 최원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며 키움의 토종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해택을 받아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선수다. LG는 차우찬이 있다. 차우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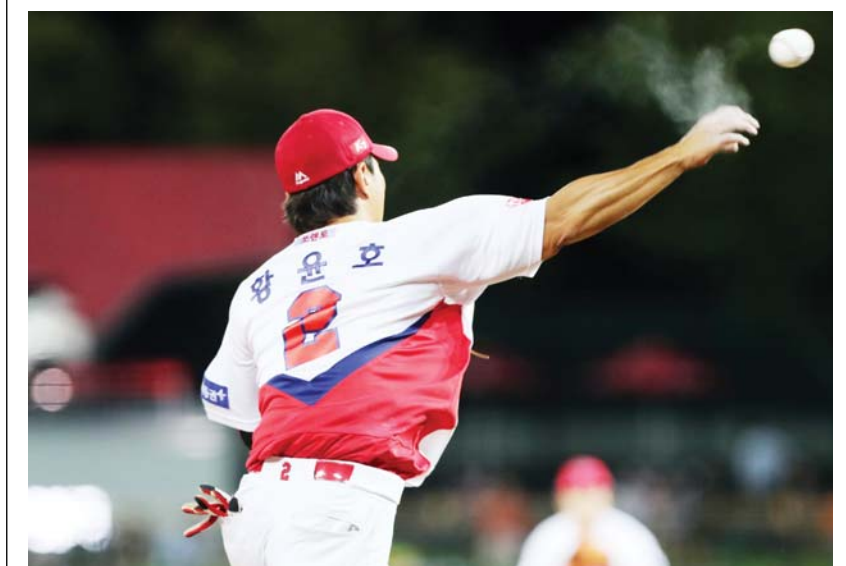
김광현, 양현종과 함께 KBO리그 '좌완 트로이카'를 구축했던 선수. 차우찬 역시 올 시즌을 마친 뒤 FA 재자격 취득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강하게 돼 있다. NC는 사이드암 이재학의 부활이 반갑다. 2013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다 2017년부터 부진에 빠졌던 이재학은 지난해 3년만에 10승을 챙겼다. 이재학과 동반 10승을 기록했던 좌완 구장모도 NC의 토종 에이스 후보다. KT는 배제성에게 외국인 듀오

의 뒤를 받칠 3선발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해 10승을 따내며 구단 한국인 선수 최초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한 배제성.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하는 것이 배제성에게 주어진 과제다. 삼성은 늦깎이 좌완 백정현이 가장 믿음직한 토종 선발이다. 지난해 외국인 투수를 포함해 팀 내 최다인 157이닝, 8승을 기록했다. 팀 전력만 받쳐줬더라면 충분히 10승을 거둘 수 있는 활약이었다. 최근 3년 간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한화와 롯데는 토종 선발 지원을 두고 엷혀 있는 관계다. 트레이드를 통해 장시환이 롯데에서 한화로 건너갔기 때문. 한화는 롯데가 가장 필요로 했던 포수(지성준)를 내주고 장시환을 품에 안았다. 토종 선발진이 취약한 한화는 당장 장시환에게 3선발 역할을 맡겼다. 롯데는 FA 미야로 지난 시즌을 통째로 쉬었던 노경은과 계약하면서 장시환의 공백을 메웠다. 2018년 9승(선발 8승)을 기록했던 노경은 역시 롯데의 3선발이 유력하다.

KIA, 美 독립리그팀과 4-4 무승부

황윤호·박진두 등 기대주 눈도장



KIA 타이거즈의 백업 및 유망주 선수들이 연습경기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선보였다. KIA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는 독립리그 연합팀 포트 로더데일 슈퍼스타즈와 연습경기 5차전에서

4-4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KIA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이 팀과의 연습경기 레이스에서 3승 1무1패를 마크했다. KIA는 1회초와 2회초, 4회초에 실점하며 0-4로 끌려다녔으나 4회말 3점을 추격하더니 8회

말 4-4 동점을 만들었다. 다만 KIA 관계자는 "이닝당 투구수 제한(15개 초과시 1타자 더 상대 후 이닝 종료)과 다양한 상황 설정 후 플레이한 결과로 정식 경기 기록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거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백업 및 유망주들이 주목할 만한 활약을 펼쳤다. 2루수 황윤호는 4회말 결정적인 2타점 좌전안타를 기록했고 역시 2루수 후보인 최정용도 3회말 안타 한 개를 날렸다. 1루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황대인, 박진두도 나란히 안타 한 개씩을 때렸다. 백업 외야수 이진영도 안타 및 도루를 1개씩 기록했다. 마운드에서는 2년차 좌완투수 김기훈이 선발로 나서 2/3이닝 2피안타(피홈런) 2실점으로 부진했지만 박정수 1/3이닝 무실점, 김현준 1이닝 2탈삼진 무실점, 김현수 1이닝 무실점 등 다른 영건들은 의미 있는 활약을 펼쳤다. 세 선수 모두 KIA 영건 투수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류현진 합류한 토론토, 올해 와일드카드 진출도 가능"

MLB '생각보다 괜찮은 팀' 선정



류현진이 합류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올 시즌 다크호스로 꼽혔다. 뉴욕 양키스, 탬파베이 레이스 등과 함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인 엠엘비닷컴은 24일(한국시간) "당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팀"으로 토론토를 가장 먼저 지목했다. 2020시즌을 앞두고 확실한 전력 보강을 통

진 보강에 집중했다. 4년 8000만달러의 FA 계약을 통해 에이스급 투수인 류현진을 데려왔다. 토론토는 2019시즌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뉴욕 양키스(103승59패), 탬파베이 레이스(96승66패), 보스턴 레드삭스(84승78패)에 이어 지구 4위에 그쳤다. 매체는 "4명의 베테랑 선발을 데려오며 좋은 오프시즌을 보냈다"면서 "류현진, 체이스 앤더슨, 테너 로어크, 일본인 투수 야마구치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맷 슈마커의 복귀도 기대를 모은다. 이로써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은 매우 복잡해졌다. 토론토가 가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엠엘비닷컴은 "기대 이상의 팀"으로 토론토와 함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텍사스 레인저스, 시카고 컵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을 꼽았다. 출신수가 뛰고 있는 텍사스에 대해선 "코리 클루버, 카일 김슨 등 최고의 선발 로테이션을 꾸렸다"며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배구도 '코로나19'에 직격탄...오늘부터 무관중

한국배구연맹(KOVO)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우려로 당분간 남은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KOVO는 "25일부터 상황 호전 시까지 도드람 2019-20 V리그를 관중 없이 치른다"고 23일 발표했다. KOVO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정부의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리그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리그운영의 연속성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3일 현재 정규리그 종료까지 남자는 20경기, 여자는 15경기를 각각 남겨놓고 있다. 한편 장소 변경을 검토했던 김천 연고 여자배구 한국도로공사의 홈 경기도 장소 변경 없이 무관중 경기로 뜻을 모았다. 김천시는 22일 "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도로공사 배구단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잔여 4경기 모두 어웨이팀 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도로공사는 김천시와 대화를 나눴고, 당장 홈경기 개최 장소를 변경하기보다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KOVO 관계자는 "김천시도 처음에는 체육관을 아예 닫는다고 했다가 논의 끝에 입장을 바꿨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팀의 경기장만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배구연맹은 무관중 경기 시에도 선수, 운영 요원 등 관계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각 구단 별로 판매가 끝난 시즌권에 대한 일부 보상이나 티켓 환불 등에 대한 조치도 추후 논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손가락 욱설' 김비오, 아시안투어 퀄리파잉스쿨 공동 5위

공동 35위까지 출전권

한국 선수 8명 최다

대회 도중 팬들을 향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던 김비오(30·호반건설)가 아시안투어 퀄리파잉스쿨을 5위로 통과했다. 김비오는 23일(현지시간) 태국 후아힌 레이크뷰 리조트 앤 골프 클럽(파71)에서 끝난 '2020 아시안투어 퀄리파잉스쿨' 파이널 스테이지 대회에서 함께 11언더파

34타로 공동 5위에 랭크됐다. 김비오는 지난해 9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DGB금융그룹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 4라운드 경기 도중 갤러리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드는 부적절한 행동을 선보였다. 16년 홀(파4) 티샷 도중 갤러리의 카메라 소리에 놀란 김비오는 티샷을 제대로 쳐내지 못했고 이에 격분해 갤러리 쪽으로 돌아서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이 행위로 자격정지 3년에 벌금 1000만원 징징계를 받았던 김비오는 이후 자격정지 1년, 봉사활동

120시간, 벌금 1000만원으로 징계가 줄었다. 올해 KPGA 투어에 출전할 수 없는 김비오는 아시안투어 퀄리파잉스쿨을 통과, 올 시즌 계속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저민 플랫-스미스(짐바브웨)가 15언더파 34타, 전체 1위로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했다. 공동 35위까지 출전권이 주어지는 가운데 한국 선수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비오를 비롯해 김동민, 김홍택, 권성열, 김우현, 서요셉, 김동근, 옥태훈이 아시안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